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돈화편]

민족단결분진곡 연주하며 번영발전의 새 화폭 그린다



돈화시역사박물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실천기지를 참관하고 있는 조사연구 취재팀 일원들

최근년간 연변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들통히 다지는 것을 뉴대로 생동하고 조화로운 발전의 화폭을 그려왔다. 경치가 아름다운 이 땅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은 석류씨처럼 한데 뭉쳐 화목하게 지내면서 특색산업을 발전시키고 역사와 문화가 융합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족단결의 꽃을 피우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서부에 위치한 돈화는 '천년고도 백년현'으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풍부한 문화와 유구한 역사가 어우러진 돈화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은 서로 뜻하고 단결, 분투하며 민족단결분진곡을 연주하면서 번영발전의 새 화폭을 그리고 있다.

최근, 주당위 선전부에서 조직한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하자' 집중조사연구 취재팀은 세번째 취재지로 돈화시를 찾았다.

돈화시역사박물관, 흥색전통 계승과 민족단결의 성벽 '주조'하다

"하나의 중국 역사에는 여러 민족이 융합되어 다원일체를 이룬 중화민족의 역사이며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주조하고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고 통일한 위대한 조국의 역사이다." 중화대지에서 여러 민족은 공동으로 광활한 강역을 개척하고 공동으로 유구한 역사를 써내려갔으며 공동으로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고 공동으로 위대한 정신을 수립해왔다.

최근, 기자는 주당위 선전부에서 조직한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하자' 주제 집중조사연구 취재팀 일원으로 돈화시역사박물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실천기지를 방문하여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역사 화폭에 대해 조사했다.

건축면적이 1,500여평방메터인 박물관은 돈화시대극장 1층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주홍색의 대문들은 네모지고 장중하며 금색의 대문 글자는 크고 굵게 써여져 있어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천년의 역사에서 축적된 중후함이 느껴진다. 박물관은 '화하군맥·동강상승' (華夏根脈·東疆相承), '전화수련·혈육상련' (战火淬炼·血肉相连), '시대감소·단결상의' (時代感召·团结相依) 등 3개 전시구역을 설치하였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제 벽면이 한눈에 안겨온다. 선명하고 흰색의 문자는 강렬한 민족 자부심과 책임감을 북돋아준다.

돈화시제 1중학교는 시범학교의 하나로서 1927년에 설립되었다. 지난 90여년간 돈화시제 1중학교는 시종 도덕교육의 근본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부흥의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새시대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왔다.



안내를 따라 들어가면 박물관은 실물 전시, 장면 모의, 그림과 문자 해석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하, 상, 주 시기로부터 민국시기에 이르기까지 돈화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와 융합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기록하고 중화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역사유전자, 중화민족이 응집되어온 역사적 코드, 중화민족공동체의 심오한 사상과 풍부한 실천을 깊이있게 해석하고 있다. 여기는 돈화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 인문, 역사적 변천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다목적 종합박물관이다.

돈화시역사박물관 관장 사후예 (史曉蕊)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지난 7월 19일, 돈화시역사박물관은 현관식을 가지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실천기지로 승격되었다. 박물관에는 3개 전시구역을 설치, 주로 돈화시역사문물전시 (소장품 300점), 돈화시무형문화재전시, 민간예술전 등이다. 연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의 '1핵 8의' 전역체험구역중의 '1의'으로서 이 박물관은 선후로 돈화시 기업 및 사업단위에서 온 30여개 연학팀의 5,000여명을 접대하였다. 그중에는 시내 중소학교 학생 1,000여명, 북경 청하대학부속중학교 및 할빈, 장춘, 길림, 연길 등 지역의 연학생들이 포함된다.

료해에 따르면 이 기지는 선후로 '길림성과학보급기지', '애국주의교양기지'로 선정, 돈화의 역사, 문화 전파와 전시, 과외 교육연학 등 기능을 짚어지고 있다.

돈화시제 1중학교, 인재 양성과 민족단결진보 승격판 구축에 살손

<전 주적으로 100개의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시범학교를 건설할 데 관한 주교육국의 방안> 요구에 따라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학교 운영 및 관리, 교육,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 융합시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교육체계를 보완하고 시범학교 추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왔다. 지난 4월 돈화시는 이미 전 시 24개 학교의 시범학교 건설사업에 대한 검수를 마쳤는바 돈화시의 시범학교 건설사업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돈화시제 1중학교는 시범학교의 하나로서 1927년에 설립되었다. 지난 90여년간 돈화시제 1중학교는 시종 도덕교육의 근본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부흥의 중임을 짊어질 수 있는 새시대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왔다.

써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이 교정에서 확고히 수립되도록 인도하고 인재 양성과 민족단결진보 승격판 구축에 살손을 다해왔다.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로 민족단결분진곡 연주하다

만족 483명, 조선족 380명, 회족 121명, 몽골족 30명, 투자족 4명, 징페족 2명, 시버족 2명… 관할구역 1만 8,640명 인구중 소수민족 주민이 1,022명인 돈화시 승리가두 문원 사회구역은 다민족 사회구역이다. 이 사회구역에서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아름다운 사회구역 건설로 민족단결분진곡을 연주하고 있다.

돈화시 승리가두 문원사회구역당위서기 소계영의 소개에 따르면 다민족 관할구역에서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척실히 전개하고자 문원사회구역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제반 사업의 주선으로 '133' 사업법을 실시해 여러 민족 주민들의 광범한 왕래, 전면적인 교류와 깊이있는 융합을 추동하고 있다.

문원사회구역은 정기적으로 다른 분야의 강연원을 조직해 주택단지나 기업에 진입해 각종 강연활동을 전개하고 '공용 생방승설', 행복학당, 강연시합, 문예시합 등 다양한 편민봉사로 주민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함과 아울러 지식경연, 민족음식 만들기, 주제전시 등 특색활동을 전개하고 가풍원, 중화전통문화교육회랑 및 특색복도 등 홍보 진지를 구축하여 여러 민족 주민들이 더욱 단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올해 사회구역에서 새롭게 출시한 '홍석류사진관' 특색 봉사는 주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한다.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민족복장, 화장과 촬영 봉사까지 제공하고 있는 '홍석류사진관'은 '집앞'에서 여러 민족 복장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매일 주민들의 사전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취재팀 방문 당일 조선족 복장을 입고 사회구역 사업일군의 도움으로 한창 활영에 집중하고 있던 주민 주승영은 "나는 한족이지만 사회구역의 특별 봉사로 예쁜 조선족 복장을 입고 사진 활영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일군들이 아주 친절하고 열정적이예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라며 기뻐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사회구역은 선후로 '시범성 로년우호 사회구역', 성급 '사회구역관리 시범단위', '교포의 집' 흥기단위, '서향윤덕' 친자열독체험기지, 우수자원봉사자 서비스 프로젝트, 주급 민족단결시범구, 민주법지 시범 사회구역, 시급 '선진기증단위' 등 20여개 영예정호를 수여받았다.

근래 돈화시는 확고부동하게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제반 사업의 주선으로 정치인으로 강화하고 선전교육을 강화하며 '3대 제고' 행동을 적극 전개하여 여러 민족 대중들의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켰다. 고품질 제품 건설을 목표로 체험구역, 연구센터, 상호상감식 사회구역, 시범학교, 관광축진 '3교'기지 건설을 고품질 고효률적으로 추진하고 각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을 적극 촉진하였으며 지역의 현대화 건설 진척을 다

그치고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왔다.

/ 리전기자

28 명렬사순난지 비석

두 세대 군인들 노력으로 더욱 빛나다



9월 20일, '중국렬사기념일'을 맞아 '연길 로병사의 집' 회원들은 연길장백산동로구조소 (원 하남소방중대) 장병 및 참전 로병사들과 함께 연길시의 란진 대성촌 실현분에 있는 '28명렬사순난지'를 찾아 색바랜 렬사기념비 비문에 일일이 색을 입혔다.

그들은 비석에 새긴 비문과 렬사명단을 페인트로 선명하게 칠하여 원래 알아보기 힘들던 비문과 렬사명단이 말끔해졌고 주위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까지 깔끔히 정리하여 추모객들을 위해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을 조성했다.

/ 박철원특약기자

룡정시, '9.18 사변' 기념일에 신병 입대식



18일, '9.18 사변' 기념일을 맞아 '국방에 진력하고 여러 민족이 함께 변강을 건설하며 군영을 위해 공을 세우자'를 주제로 한 입대 신병 환송 행사가 길림직업기술학원 운동장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룡정시정부, 룡정시민정 및 뇌역군인사무국, 길림직업기술학원 등의 책임자들과 참전 로병사, 전체 입대 신병 및 그 가족들이 참가했다.

현장에서 룡정시장병사업지도소관련 책임자가 입영통지서를 광독하고 회의 참가 지도일군들이 입대 신병들의 가슴에 붉은꽃을 달아주었으며 입영통지서를 발급했다. 입대 신병 가족에는 '영광의 집' 영예패를 발급했다. 입대 신병 리만승은 "고생과 헌신에 앞장서는 부대의 훌륭한 전통을 견지하여 강군사업의 길에서 로령근거지의 흥색유전자를 잘 계승하며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룡정시정부 부시장 윤동일은 "룡정시의 젊은 인재들은 이제 곧 새로운 길에 올라 나라의 기둥으로 될 것이다."라고 축하했다.

/ 김영화기자